석우 스님의
## 조주록 선해 <14>

# 진정한 선사는 평범하다

한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화상의 뜻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베풂이 없다."

問 如何是和尙意 師云 無施設處

선(禪)을 알리려면 진심직설(眞心直說)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잎을 설명하고 가지를 소개하는 방법으로는 선의 핵심을 깨닫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사들은 지름길을 알려주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가 하면 한 칼에 베어 버리기도 했다. 아무리 가르쳐주기를 간절히 애걸복걸 청해도 한 마디도 베풀지 않기도 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몹시 서운하다 할지 몰라도 나중에 깨닫고 보면 선사의 뜻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문답에서 조주 스님이 "베풂이 없다"고 말한 것은 자상한 가르침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주 스님은 바로 가는 방법을 지시하기 때문에 때로는 야멸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그것이 조주가 사람을 접화(接化)하는 뜻이다.

조주 스님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덕산 스님은 주장자를 내리쳐서 가르쳤고, 임제 스님은 소리를 꽥꽥 질러서 사람을 놀라게 했고, 목주 스님은 찾아온 사람의 발목을 부러트리고, 달마 스님은 팔을 끊어 바치게 했으니 선의 냉혹함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지, 사람을 망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조주 스님이 상당해 설법했다.
"형제들이여, 다만 과거를 고치고 미래를 닦으라. 만일 과거를 고치지 않으면 그대들을 놓아둘 장소가 마련돼 있다."

師上堂云 兄弟但改往修來 若不改大有著你處在

수행은 다만 과거의 잘못된 생각과 습성을 고치는 것이다. 사람 자체는 원래부터 깨끗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사람은 잘못된 앎과 습성으로 중생의 삶을 사는 것이다. 만일 사람이 자신이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과거의 잘못을 고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더 이상 무엇이 될 것은 없다.

간혹 부처가 되겠다고 기를 쓰고 수행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는 자이다. 그렇게 수행해서는 1000만년을 지내면서 수행한다고 해도 절대 부처가 되지 못한다. 그것은 머리를 두고 머리를 찾는 것과 같고, 옷 속에 보배가 있는 데도 알지 못하고 걸인이 되어 거리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다.

이 법은 다만 자신의 출신을 한번 깨닫고 바로 부처의 길을 가면 그만이다. 혹 수행이 필요하다면 과거의 행위를 고치는 것일 뿐이지, 새로운 무엇이 될 것은 없다. 이것을 모르고 과거의 악습을 끊지 못하고 있거나, 과거의 악습을 고치는 것은 제쳐두고 엉뚱한 경계를 얻기 위해 수행하고 있다면 머지않은 날에 쓴 맛을 보고 말 것이다.

"노승이 이곳에서 30년을 살아왔는데 선사(禪師)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었다. 설사 왔다고 해도 하룻밤 한 끼를 먹고는 서둘러 떠나거나 또한 따뜻한 곳을 찾아 가버렸다."
한 스님이 물었다.
"홀연히 선사가 찾아왔다면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1000근이나 되는 노(弩:활 종류)는 생쥐 따위를 보고 쏘지 않아."

**사람은 본래 깨끗해 아무 문제가 없다**
**잘못된 앎 · 습성으로 중생의 삶을 사는 것**
**부처가 되려는 수행은 어리석은 짓**

老僧在此間三十餘年 未曾有一箇禪師到此間 設有來一宿一食急走過 且趁軟軟暖處去也 問 忽遇禪師到來 向伊道什麼 師云 千鈞之弩 不爲鼷鼠而發機

신라시대 명노사(名弩師) 구진산(仇珍山)은 여러 개의 활을 날릴 수 있는 강한 노(弩:쇠뇌, 활)를 만들었다. 기원전 200년 경 진나라를 멸망시킨 항우는 힘이 얼마나 셌던지 무쇠 솥 정도는 가볍게 들었다.

선사? 누가 선사인가? 조주 스님은 지금 30년을 지내보지만 선사는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1000근이나 되는 노(弩)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진정한 선사에 비유한 것이다.

스스로 선사라 칭하면 벌써 선사가 아니다. 한낱 남의 물건을 도둑질이나 하는 생쥐에 불과할 뿐이다. 조주 스님은 진정한 선사라면 그런 엉터리 선사와는 아무런 대담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선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 선사라 칭하지 않는다. 이 법은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적용된다. 진정한 선사는 평범하다. 아무 것도 내세우지 않고 아무 것도 아는 바가 없다. 만일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있거나 스스로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도를 모르는 사람일 뿐이다.

"형제들이여, 만일 남쪽에서 오는 자가 있으면 곧 그 사람을 위해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내려줄 것이고, 북쪽에서 오는 자가 있으면 곧 짐을 실어줄 것이다. 까닭에 이르기를 '상급 인물에 다가가서 도를 물으면 도를 잃고 하급 인물에 다가가서 도를 물으면 도를 얻는다'라고 했다."

師云 兄弟若從南方來者 卽與下載 若從北方來卽與裝載 所以道 近上人問道卽失道 近下人問道者卽得道

이 설법은 조주 스님이 유난히 북쪽에서 온 납자들을 싫어했다는 것은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남쪽에서 온 자라면 짐을 덜어주지만 북쪽에서 오는 자들은 스스로 짐만 짊어지고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하지 않고 있다. 다만 상급인을 가까이 하면 도를 잃지만 하급인을 가까이하면 도를 얻는다고 짤막하게 말하고 있을 뿐이다.

조주 스님의 저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추측컨대 여기서 북쪽은 북종선을 두고 한 말로 보여 진다. 육조 혜능 스님이 선법을 펼치기 시작한 이래로 북쪽은 신수종이라 해 닦는 것을 강조한 선불교의 교세를 확충시켰고, 남쪽은 혜능종, 혹은 돈종(頓宗)이라 해 깨닫는 즉시 닦음도 마친다(悟人頓修)는 선법으로 나뉘어 있었다.

홍인의 법은 홍인의 신수를 제치고 혜능에게 전해졌지만 나중에 신수는 북쪽에서 선법을 크게 펼쳤다. 신수는 국사의 지위까지 이르러 개인적으로도 크게 성공했다. 반대로 혜능은 남쪽에서 선법을 펼쳤지만 혜능은 글자를 모르는 나무꾼 출신이고 거의 산중에서 생활해 남쪽 선객들 사이에서만 이름이 높았다.

조주 스님은 남전 스님의 법을 이었고 남전은 육조 혜능 계열의 제자이다. 따라서 조주 스님의 선법은 돈법(頓法)이고 깨닫는 즉시 닦음도 마친 붓다임을 강조한 선법이다. 조주 스님의 이러한 선법은 남종(南宗)의 문하라면 즉시 이해되는 선법이고 그동안 쌓아온 온갖 지식을 떨쳐버리고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짐을 덜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북종(北宗)의 문하라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짐을 더 짊어지고 가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 무불선원 선원장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 달마관심론 19

# 법과 이치에 맞아야 한다

#예배하는 법

예배는 항상 법에 맞고 이치에 맞아야 하느니라. 이체(理體: 만유의 본체)는 안으로 밝지만 작용의 모습은 밖으로 변하므로 이치는 버릴 수 없지만 현상에는 드러나는 것과 숨은 것이 있느니라.

이와 같은 도리를 알아야 비로소 법에 의지한다 할 수 있느니라. '예(禮)'라는 것은 공경한다는 것이고 '배(拜)'라는 것은 복종한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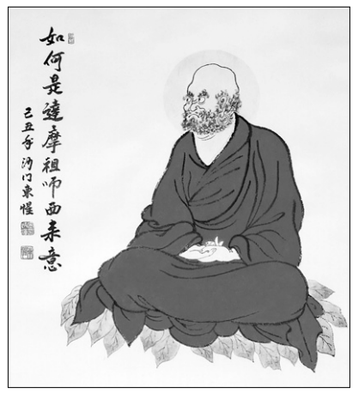
진실한 본성(진여, 법성)을 공경하고 무명을 굴복시키는 것을 예배라 하느니라. 공경하기 때문에 감히 헐뜯지 못하고 굴복(항복)시키므로 제멋대로 못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쁜 마음을 영원히 없애고 착한 생각을 항상 지닐 수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예배하고 있는 것이니라.

수용하면 나타나고 버리면 감추어지는 것이라 밖의 행동(밖의 예배)으로 안이 밝아지는 것은 성품과 모양이 서로 상응한 것이기 때문이니라.

바깥 모습의 예배에만 집착하면 안으로 탐 · 진 · 치의 마음을 제멋대로 풀어놓은 것이 되므로 항상 나쁜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만 절하는 모습을 보일 뿐이고 거짓으로 공경하는 것이 되니 어찌 예배라 할 수 있겠느냐.

현명한 사람을 흘리는 짓이고 성인을 속이는 짓이므로 반드시 윤회를 면하지 못할 것이니라.



達磨坐禪圖1 · 46 x 51cm. 동성 스님 作.

[원문]

見爛壞死屍 稱名有命 必無是處 又禮拜者 常如法也 必須理體內明 事相外變 理不可捨 事有行藏 會如是義 乃名依法 夫禮者敬也 拜者伏也 所謂恭敬眞性 屈伏無明 名爲禮拜 以恭敬故 不敢毁傷 以屈伏故 無令縱逸 若能惡情永滅 善念恒存 雖不現相 常爲禮拜 其相者則身相也 欲爲令諸世俗 表謙下心 故須屈伏外身 現恭敬相 用之則現 捨之則藏 擧外明內 性相應也 若復不行理法 有執外相 內則迷故 縱於貪嗔癡 常爲惡業 外則空顯身相 何名禮拜 欺賢 聖 必不免於輪廻

[해설]

예배는 일상에서 하는 행동이 법에 맞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짜 부처님을 알아야지 형상과 이름의 부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도를 깨달으신 후 "부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본래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라고 했습니다.

"현상계는 드러나는 것과 숨은 것이 있다"는 뜻은 정진을 통해서 체험을 하게 되면 안과 밖이 없는 소식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의 부처님은 모양이 없지만 모양이 없는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계도 역시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요, 들리는 소리는 묘음"이라고 말씀 했던 겁니다.

모양이 없는 본래 자리에서 인연을 따라 나타나는 현상계도 역시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에서 색(色)은 물질(현상)을 말하고 공(空)은 근본을 말하며 근본과 물질은 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공경한다고 했을 때는 대상이 없습니다. 모양이 없는 것에서 나타나는 현상계도 역시 부처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얼음과 물이 둘인 것 같지만 물이 찬 기운을 만나서 얼음이 됐을 뿐 결국 얼음과 물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본래 마음이 부처라고 한다면 마음이 인연 따라 나타나는 현상계도 역시 부처님입니다. 진리에서 보면 부처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체의 대상이 모두 공경의 대상이라는 얘깁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육신은 진짜가 아닌데 우리는 이 육신으로 인해 업을 짓고 있습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할 뿐이지 전자현미경으로 비춰보면 모두 텅 빈 것입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나라는 것이 본래 없으니까 나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의 마음자리에 두고 항상 한 생각을 놓치지 않고 정진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진짜 수행자들은 상을 내지 않으며 마음속에서 행주좌와(行住坐臥)가 돼 한 생각을 놓치지 않고 정진을 합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하는 것입니다. 법당에서만 절하고 정진하는 것은 진정한 불자의 삶이 아닙니다.

"어두운 방에 혼자 있다고 보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말이 있습니다. 우리 의식 속에서는 밖을 내다보지 못하지만 성현들이나 영가의 세계는 마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벽이 없어서 우리의 생각을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성현들은 겉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어도 마음에서 욕심을 끊지 못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불자들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있거나 없거나 내 공부는 내 스스로 해야 됩니다. 누가 대신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님들이나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길만 일러 주는 것입니다. 길은 일러주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본인 스스로에게 달렸습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4기 佛教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 | |
|---|---|
| 기본과정 (3개월)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 중급과정 (3개월)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 **작법반 (1년)**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
| 신행과정 (1년) |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특수작법 (1년) |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0년 5월 26일까지 접수
◆ 개강일시 : 2010년 5월 27일 매주 (목) 오후 5시 ~ 8시 (3시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